

# 러일전쟁 최후의 해상전투, '동해해전' 재구성\*

심헌용\*\*

1. 들어가는 말
2. 동해해전의 전개과정
3.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1905년 5월 27~28(구력 5월 14~15) 양일 간에 걸쳐 러시아 함대와 일본 함대가 대한해협을 끼고 쓰시마섬 인근 해역으로부터 동해의 한 가운데 울릉도·독도 해역에 이르는 해상에서 격돌하였다. 그 전투 규모가 워낙 컸고, 결국 러일전쟁의 전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였기에 대회전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전투 결과 일본은 전쟁의

---

\* 2014년 한국러시아사학회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러일전쟁, 110년을 말한다.", (2014. 3. 22, 동북아역사재단)에 발표되었던 글을 수정보완하였다. 논문 심사자의 심사평에 감사한다.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선임연구원

주도권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질 수 있었다. 일본 연합함대는 발트해에서 발진해 온 러시아 제2태평양함대를 괴멸시킴으로써 러시아 해군이 단기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 그에 따라 일본은 당시 전쟁의 주도권만이 아니라, 전후부터 1945년 소련의 대일전 참전으로 패할 때까지 동해(East Sea)<sup>1)</sup>를 자신의 내해로 삼아 동북아 해상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동해해전이란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러일전쟁(1904~1905) 기간 동해 해상에서 전개된 일련의 전투를 설명하기 위해 ‘동해(의 - 필자) 해전’을 사용한 경우<sup>2)</sup>는 있어도 1905년 5월 27~28일간 전개된 일련의 해상전투를 ‘동해해전’으로 명명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 러시아를 포함한 외국 학계에서도 단지 5월 27일 대한해협 동수로 쓰시마 해상 근처에서 전개된 전투를 쓰시마전투(對馬島戰鬪, The Battle of Tsushima, Цусимское сражение)로 설명하면서<sup>3)</sup> 동해해전이란 명칭은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이튿날인 5월 28일 러시아 군함이 북쪽으로

1)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이자 태평양의 서쪽 연해를 일컫는 말로 한국의 동해안,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섬, 일본 열도, 쓰시마섬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1945년 한반도의 광복 이전까지는 조선해·창해라고도 했다. 북쪽에는 타타르해협과 소야해협이 있고 남쪽에는 대한해협이 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국제수로기구(ИHO)에서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S-23)」에서는 남해의 동쪽 해역을 동해로 분류하나 명칭은 일본해(Japan Sea)를 사용해 왔다.(제1판 1929, 제2판 1937, 제3판 1953) 최근 한국의 명칭 채택도 요구에 따라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 김화정, 「동해 해전과 독도의 전략적 가치」, 『大邱史學』 제103집, 대구사학회, 2011, p.1-175. 이 때 전개된 전투는 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함대와 일본 연합함대 제3함대 간 전투가 이루어졌다.

3) E. V. Potter(de.), *Sea Power. A Naval History*, Ea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0, pp.360~364. 러시아 해전사 문헌인 *Морские бои и сражен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или причина поражения : кризис управления*(러일전쟁의 해상전투와 회전 또는 패배의 원인인 관리의 위기)(Кокцинский И. М.)(M., 2002)에는 쓰시마해전과 일본해해전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도주하다가 울릉도, 독도 또는 한반도 동해안의 울산만, 죽변만 인근 해상, 즉 동해 중서부 해상에서 전개된 전투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일련의 후속전투를 쓰시마전투 결과 흡어지거나 도주하는 잔적을 소탕하는 추격전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동해해전이란 통상 쓰시마전투(對馬島戰鬪)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905년 5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벌어진 이 해전은 27일 첫날만 해도 전장은 대한해협 동수로인 쓰시마해협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동해 남부지역에까지 걸쳐 전개되었다. 게다가 둘째 날인 28일에는 동해 중부인 울릉도-독도 인근 해상과 한반도 동해안의 울산과 울진의 죽변만(竹邊灣) 근처인 동해 서부 해상에 걸쳐 격전(激戰)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전투는 도주하는 3척의 러시아 군함을 일본 군함이 동해 북부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뒤쫓는 추격전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 모든 전투를 총칭하려면 쓰시마해전보다는 동해해전으로 부르는 게 더 적합해 보인다. 즉 공간상으로 결코 쓰시마 해역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규정내림에 따라 전투 양상과 전역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는 장점을 갖게 된다.

오히려 일본의 전문학술서에서는 동해를 이르는 명칭을 써서 일본해 해전(日本海海戰)이란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sup>4)</sup> 전문학술서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서에도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해 해전이란 용어는 공식적인 기록물 내에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전투가 끝난 뒤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이 일왕에게 보고한 연합함대의 승전 내용이나 또는 그에 대한 답으로 일왕이 내린 칙어, 그리고 이에 대한 봉답문 등에서 줄곧 사용되었다. 칙어에는 “일본해의 대해전에서 적 함대를 잔멸시키고, 광고(曠古)의 대첩을 거둔 연합함대의 위공을 높이 평가한다.”로, 승전보고서 “일본해의 전첩에 대하여...”나

4) 別宮暖郎, 『坂の上の雲では分らない日本海海戰』, 2005; 近現代史編纂會 編, 『日露戰爭』東京: 新人物往來社, 2003.

봉답문 “연합함대가 일본해에서 적 함대를 격멸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특별히 우악(優渥)한 영지를 받게 된 ...”<sup>5)</sup> 등에서 각각 일본해(동해)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전제로 러일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최후의 해전을 ‘동해해전’이라 명명하고, 당시 전개된 전투과정을 시간대별로 나누되, 발생한 주요 전투를 전역별로 구분하여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시간의 흐름은 일본 해군부에서 작성한 『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제2부) 속에 구분된 전투 경과와 러시아 전사연구소 소속 전문연구원인 로스투노프(И. И. Ростунов)가 편찬한 『Истор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904-1905 гг.』 속의 전투단계별 구분을 비교 참조하였다. 그렇게 보자면 5월 27일 쓰시마 해역에서 동해 남부에 걸쳐 전개된 주간 전투를 제1단계 격돌(대한해협 동수로 전투)로 보고, 당일 야간에 전개된 전투를 제2단계 격돌(동해 남부 야간 전투) 그리고 5월 28일 오후에 울릉도-독도 인근 해역과 죽변만 주변 해역에서 전개된 전투는 제3단계 격돌(동해 중서부 전투)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2. 동해해전의 전개과정

### 가. 러시아와 일본의 함대 구성 및 조우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는 뤼순을 함락시킨 후인 1905년 1월 21일 전 함대를 대한제국의 진해항에 집결시켰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이래 진해항을 자신의 해군전진

5) 海軍軍令部, 『極秘明治三十七八年海戰史』 제2부, 해군본부 역, 『명치 37, 38년 해전사』(하권), 2006, pp.276~277.(이하 『해전사』)

기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도고 사령관은 진해를 중심으로 약 3개월 간 해상훈련을 실시하면서 러시아 함대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러시아 극동함대의 위기를 구하러 발트해에서 구성된 제2태평양함대가 아프리카 희망봉, 인도양, 동남아를 지나 곧 당도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 제2태평양함대는 로제스트벤스키(З. П. Рожественский) 사령관을 중심으로 4개 함대로 구성되었다. 주력함만 계산해도 장갑함 8척, 순양함 5척이 포함되었다. 그 후 사령관 네보가토프(Н. И. Небогатов)가 지휘하는 제3태평양함대의 장갑함 1척(니콜라이 1세함)과 해안방어용 장갑함 3척을 이끌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반·폰만 부근에서 합류하였다. 그런데 뤼순이 이미 일본에게 함락되었기 때문에 제2태평양함대가 뤼순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할 명분과 사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러시아 함대는 곧바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진하기로 하였다. 다만 경로는 대한해협을 거쳐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항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러시아 제2태평양함대의 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와 제3태평양함대의 네보가토프는 작전회의를 열었지만 그리 진지하게 논의하지는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는 경로는 단거리의 대한해협 동·서수로와 일본을 우회하되 라페루즈(소야)나 쓰가루 해협을 거치는 장거리 경로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했겠으나 양 함대 간에는 의견교환이나 작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6)</sup> 러시아 함대는 대한해협 동수로로의 이동이 오랜 항해로 지친 여정을 단기간에 마칠 수 있는 가장 짧은 경로였기에 선택했을 뿐이었다.

6) 심현용, 『한반도에서 전개된 러일전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p.150.



심현용, 『한반도에서 전개된 러일전쟁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p.150.

마침내 러시아함대는 1905년 5월 23일 상하이와 오키나와에서 마지막 석탄을 싣고 대한해협을 향해 북상하였다. 함대는 3개로 편성하였다. 제1함대는 기함 크냐지 수보로프함에 로제스트벤스키 사령관이 승선해 오를함, 알렉산더 3세함, 보로지노함을 지휘했으며, 제2함대는 기함 오슬라바함에서 사령관 펠케르잠이 나바린함, 시소 이 벨리키함, 나히모프 제독함 등을 지휘하였다. 제3함대는 후에 합류한 제3태평양함대로서 네보가토프가 기함 니콜라이 1세함에서 세냐빈함 등을 지휘하였다.

일본 연합함대 역시 3개 함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연합함대의 본진과 제2함대에 후방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와 동해 제해권을 다투던 제3함대를 별도로 합류시켰다. 제1함대는 도고 제독이 기함 미카사(三笠)함에 승선하여 연합함대는 총지휘하였다. 제2함대는 가미무라 히코노조(上村彦之丞) 제독이 기함 이즈모(出雲)함에 승선하여 4개의 전투 제대를 지휘하였다. 제3함대는 카타오카 시치로(片岡七郎) 제독이 기함 오키시마(嚴島)함에 승선하여 5개 전투제대를 지휘하였다.

일본 함대의 고민은 과연 러시아 함대와의 작전을 어디서 전개할 것인가의 예측에 있었다. 일본 해군은 숙고 끝에 러시아 함대의 선택이 대한해협을 지날 것이라 판단하고 공격적 방어작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오키 군도와 같은 동해 안쪽이 아니라 진입로라 할 수 있는 대한해협의 길목인 진해에 근거지를 두고 대비하기로 하였다. 일본군은 이미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 해저통신선, 그리고 울릉도에는 망루까지 설치한 상황이었어서 러시아 함대의 이동을 미리 감지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설령 러시아 함대가 일본 열도를 태평양으로 돌아 쓰가루해협을 지나가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곳 진해에서는 동해를 통해 쓰가루해협을 통해 지나갈 러시아 함대를 미리 막고 대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일본 해군은 마침내 1905년 5월 27일 새벽 대한해협의 동수로, 즉 쓰시마 해협을 지나는 러시아 함대를 발견하게 된다. 일본 함대는 소형함정을 동원하여 북상해 오는 제2태평양함대를 수색하던 중이었다. 러시아 함대는 일본의 어뢰공격을 피하기 위해 8노트의 낮은 속도로 감속해 대한해협으로 진입했다가 쓰시마해협 부근에서는 일본 함정의 매복을 피하려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있었는데 발각되었다.

5월 27일 새벽 2시 45분경 일본의 시나노(信濃)함이 순찰 운행

중 러시아 병원선이 가까이 지나쳐 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까이 다가서 보니 포대가 없었고 전기등을 이용해 일본 측에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러시아 측이 아군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일본 측이 임검을 실시하려는 순간 북동쪽으로 1,500m 거리에 수십척의 군함이 연기를 뿜고 향진하는 것이 드러났다. 시나노함은 급히 키를 돌려 “적 증원함대를 발견하였음”이라며 타전하였다. 이때가 4시 45분이었다.<sup>7)</sup>

시나노함의 타전으로 러시아 함대의 출현을 확인한 일본군은 초계함 이즈미(和泉)함으로 하여금 러시아 함대의 항로와 진형을 파악토록 하였다. 러시아 함대는 순양함이 앞서고 약 2km 떨어진 후미에 장갑함이 뒤따랐으며 그 사이에 수송선이 배치되어 이동하였다. 함대 맨 뒤편에는 병원선이 따라왔는데,<sup>8)</sup> 그 병원선이 발견된 것이다. 일본 함대의 도고 제독은 장갑함 주력을 마산포에 그리고 순양함과 어뢰정은 쓰시마 근처에 매복시켜 놓았었는데 러시아 함대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가덕수로를 통해 경유해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 나. 제1단계 대한해협 동수로 전투(27일 오후 전투, 대한해협 동수로 - 동해 남부)

적함이 출현했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한 일본 연합함대 본진이 러시아 함대 본진과 전투를 벌였다. 전투 해역은 대한해협 동수로, 즉 쓰시마해협 동쪽으로 동해상에서 보면 남쪽에 해당되는 곳이다. 제1단계 격전은 27일 오후 2시부터 7시 30분까지를 진행되었다. 이때 일본 연합함대는 도고사령관이 지휘하였고 러시아 측은 로제

7) 『해전사』 pp.172~173.

8) A. B. Широкоград,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войны 1904~1945*(M.: Харвест, 2003), c. 340.

스트벤스키가 사령관이었다.

27일 오후 1시 39분경 쓰시마해협을 지나는 러시아 함대를 찾아 일본 연합함대 본진이 다가섰다. 도고 제독은 전투 개시 명령을 내리고는 직접 기함 미카사함을 타고 지휘하였다. 러시아 함대의 선수를 치러 왼편으로 기동했으나 거리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측에는 러시아의 전함 4척이 위치해 있고 후위에도 러시아 함대가 포진된 상태가 되었다.<sup>9)</sup> 일본 측 전함의 초기 기동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자 다시 역방향으로 돌아 원위치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거리가 7km 정도로 근접해 떨어져 있었다. 어쩌면 이 순간, 즉 일본 함대가 초기 기동하던 15분의 포위상태는 러시아 함대가 공격하여 우세를 점할 수 있었던 기회였겠으나 지체됨으로써 그리 하지 못했다.<sup>10)</sup>

러시아 함대는 일본이 자신의 왼편을 공격하려는 줄 알고 일렬로 정렬하였다. 러시아 함대는 13시 49분 경 약 4분여 동안 머뭇거리다가 첫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포격 지휘 실수로 일본 함대를 정확하게 타격하지 못하였다. 계속 퍼부은 포탄 역시 타점이 수정되지 않은 채 발사되어 엉뚱한 곳으로 떨어졌다. 실수의 연속이었다. 14시 10분경 일본 군함 미카사함이 변침하는 때를 이용해 크냐지 수보로프함에서 포문을 열자 일본 측 역시 응포함으로써 교전이 전개되었다.<sup>11)</sup>

14시 20분 경 일본 함대의 첫 포격대상이던 오슬라바함이 기울기 시작해 15시 경 침몰하였다. 러시아 사령관이 타고 있던 수보로프함 역시 돛대와 망루가 부서지고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9) 『해전사』, p.176.

10) А. Б. Широкоград, *Русско-японские войны 1904~1905*, М.: Харвест, 2003, с. 340; И. И. Ростунов(ред.), *История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904~1905 гг.*, 김종현 역, 『러일전쟁사』,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005, p.433.(이하 『러일전쟁사』)

11) 『해전사』, p.173.

화염에 휩싸이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게다가 포탄이 전투 갑판실에 명중되어 로제스트벤스키 함장이 중상을 입었다.<sup>12)</sup>

일본 함대는 14시 50분경 선두에 섰던 알렉산드르 3세(Александр III)함의 옆구리에 접근하여 직각 방향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알렉산드르 3세함은 19시 경 결국 867명의 병사들과 함께 침몰하였다. 17시경 기함 크냐지 수보로프(Князь Суборов)함이 전투지에서 벗어나 부이니(Буйный)함으로 부상당한 로제스트벤스키 사령관과 휘하 참모 그리고 병사들 20여 명을 인도하였다. 이때 크냐지 수보로프함은 왼편으로 기울면서 75mm 대포마저 바다에 빠트렸다. 크냐지 수보로프함은 사령관을 인도한 후 일본 제3함대로 돌진하여 포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일본 측 어뢰정 11척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아 승무원 925명과 함께 운명을 달리하였다.

부상당한 사령관을 태운 부이니함 역시 돛대, 신호용 갑판실, 상하 갑판, 대포, 사령실 등이 파괴된 채 이미 10도 이상 기울고 있었다. 부이니함 역시 기관에 바닷물이 침투해 손상을 입음으로써 속력을 11노트 이상 낼 수가 없었다. 부상이 심한 로제스트벤스키 사령관은 지휘권을 제3태평양함대 사령관 네보가토프 제독에게 이양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사령관과 참모들은 다시 어뢰정 베도비(Бедовый)함으로 옮겨 탔지만 함장 바라노프(Н. В. Баранов) 중령 역시 항복함으로써 모두 포로가 되었다.

나히모프 제독함은 주간 전투에서 심한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일몰 후 함수에 어뢰 공격을 받아 침수되기 시작하였다. 열외가 된 나히모프 제독함은 표박하고 응급수리에 들어갔다. 겨우 수리를 마친 군함은 천천히 움직였으나 침수가 지속되는 관계로 장거리 운항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었다. 이에 함장 로지오노프 대령은 블라디보스

12) 『러일전쟁사』, p.437.

토크로의 항진을 포기하고 쓰시마섬 연안에 머물렀으나 결국 좌초되었다.<sup>13)</sup> 한편 베도비함과 함께 있던 어뢰정 그로즈니(Грозный) 함은 일본 함정을 피해 계속 항해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속력으로 전투지로부터 이탈해 블라디보스토크 목적지까지 도달하였다.

#### 다. 제2단계 동해 남부 야간 전투(27일 야간, 동해 남부)

5월 27일의 주간 전투에서 일본 함대는 다소간의 손상을 당하기는 했지만 장갑함이나 순양함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반면에 러시아함대는 완패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되었다. 27일 낮에 벌어진 최초의 전투에서 러시아 전함 4척 중 3척인 크냐지 수보로프함, 알렉산더 3세함 그리고 보로지노함이 수장되었고, 제2함대의 장갑함 오슬라바함 역시 침몰하였다. 보조선인 우랄함과 정비선 캄차트카함 역시 침몰되어 핵심 전투력이 거의 손실되었다.<sup>14)</sup> 총사령관 로제스트벤스키는 중상을 입어 지휘권을 네보가토프에게 이양했으며 본인은 포로가 되었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자 도고 제독은 어뢰정으로 계속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라고 지시를 내리고는 본진을 이끌고 울릉도 방향으로 항진하였다. 그 곳에서 도주하는 러시아 군함들을 공격하려는 작전이었다.

제2차 격돌은 비록 야간이지만 본진에서 떨어져 도주하려는 러시아군함을 마저 공격하라는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다. 러시아함대는 지휘권을 이양받은 네보가토프가 기함 니콜라이 1세함을 타고 이끌고 있었다. 당시 지휘권을 이양받은 네보가토프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19시경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하여 북진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 하였다. 그러나 17시 30분 경부터 일본 측 어뢰정의 공격을 받아 도주 항로가 동북쪽이 아닌 북서쪽으로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13) 『해전사』, p.238.

14) 『러일전쟁사』, p.439.

우왕좌왕 변침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sup>15)</sup> 니콜라이 1세함이 기함이 되어 수척의 전함이 따라 나섰지만 상당수는 각각 흩어져 도주하였다.

20시 10분경 일본 함대가, 특히 러시아 함대보다 북쪽에 있었던 어뢰정 오보로(隴)함, 이카즈치(雷)함, 이나즈마(電)함 그리고 아케보노(曙)함 등 약 40척의 군함이 맹렬한 기세로 포화를 퍼부었다.<sup>16)</sup> 일본 측 군함이 공격해 들어가자 도주하던 러시아 군함은 탐조등을 점등하고 방어차원의 포화를 응사하였다. 양측의 교전은 매우 격렬하였고 20시 30분 경 탐조등이 완전 소등되어 전투가 전개될 수 없을 때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상당수 군함이 대오에서 벗어나 분리되거나 낙오되어 오롤, 아프락신, 세냐닌 그리고 이즈무르트함 등 4척 만이 기함 니콜라이 1세함을 따를 뿐이었다. 나바린함은 침몰하였고 시소이 벨리키함, 나히모프함, 블라지미르 모노마흐함이 큰 피해를 입었다.<sup>17)</sup> 일본 측은 어뢰정 3척을 잃었고 수척의 군함이 사소한 피해를 당했을 뿐이었다.<sup>18)</sup>

한편 5월 27일 오후 6시경 일본 군함 치도세(千歲)함은 제1함대 기함 가시기(笠置)함을 따라 나섰다가 기함을 인계받고 밤 9시 50분경 울릉도로 향하였다. 28일 오전 4시 경 좌현에서 러시아 군함을 발견하고는 고속으로 따라잡아 20분경 포격을 개시하였다. 7분 정도 지나 러시아 군함이 더 이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어 침몰될 것으로 보여 포격을 중지하였다. 이 배는 명령을 수행하다가 단독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하여 항진하던 중 치도세함에 발각되어 포격을 받은 후 침몰하였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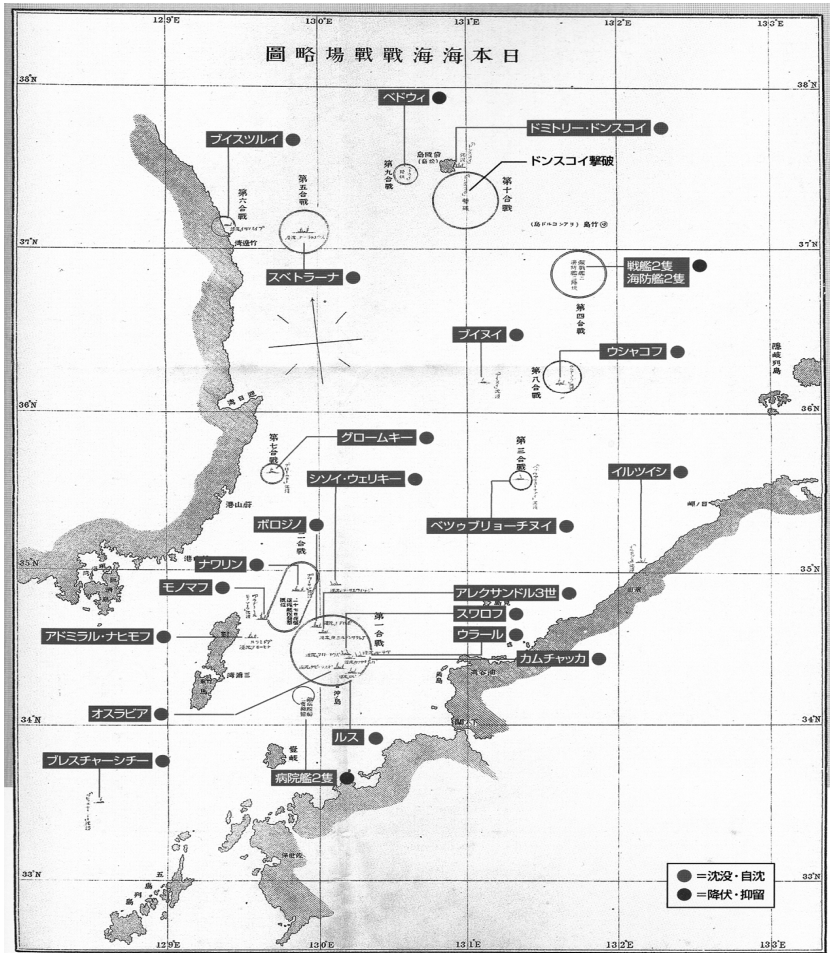
15) 『해전사』, pp.225~227.

16) 『해전사』, pp.226~235.

17) 『해전사』, p.235.

18) 『해전사』, p.245.

19) 『해전사』, pp.253~254.



1905.5.27-5.28  
**日本海**  
 海戦

**日本海海戦戦場略図**

図は日本海海戦の第1～第10合戦の位置と、各戦艦海域で沈没や自沈、または降伏したり抑留されたバルチック艦隊の艦名が書きこまれている。図中に見える艦名だけで、沈没・自沈が20隻、降伏・抑留艦隊は7艦にものぼっている。ここに見えない艦も、巡洋艦アルマーズ、駆逐艦ブラーウィ、駆逐艦グロスヌイなどを除き、中立国で武装解除されるなどして、ロシア軍艦としての価値を失った。

△ 일본해해전 전장약도(쓰시마섬 동쪽에서 시작된 전투가 동해 한가운데인 울릉도·독도 해상에까지 전개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라. 제3단계 동해 중서부 전투(28일 새벽~28일 오후, 동해 중서부)

28일 오후 18시경 도고 제독의 작전지시에 따라 울릉도 해상에 집결한 60여 척의 일본 어뢰함은 러시아함정의 이동을 길목에서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소규모로 나뉘어 러시아 함정을 포위 수색해 들어갔다. 이때 주요 목표가 된 군함은 지휘권을 인계받은 네보가토프 사령관이 탄 니콜라이 1세(Николай I)함이었다.

네보가토프가 이끄는 제3태평양함대는 쓰시마 해전에서 3,065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접전을 벌였으나 크게 손상을 입지는 않았다. 다만 주포인 305mm 대포를 다수 상실했고 일부 선수가 부서진 함정도 있었다. 사망한 병사는 11명이었고 부상자는 57명이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속도가 10노트 수준으로 떨어져 전투기동력을 많이 상실한 점이 문제였다.<sup>20)</sup>

일본 연합함대에 쫓기던 기함 니콜라이 1세는 울릉도 근해 해상을 지날 때 미리 집결하고 있던 일본함대와 다시 부딪혔다. 새벽 5시경 울릉도 남쪽에서 약간 서쪽에 치우친 30km 지점이었다. 멀리 뒤에서 추격하던 일본 군함도 동쪽에서 북동방향으로 진행하는 러시아 함대를 발견하였다. 28일 아침 10시 15분경 빠른 속도로 8km 지점까지 따라붙은 일본 순양함 가르가(春日)함이 선제 포격을 가하였다.<sup>21)</sup> 전투력이 남아있던 장갑함 아프락신(Апраксин)함과 오를(Орел) 어뢰함이 기함을 호위할 겸 분전하였다.

일본 함대는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집중 어뢰공격을 시작하였고 러시아 측은 갑판 위의 포대로 응사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판단한 네보가토프는 항복을 결정하고 기함기를 절반가량 내리고 만국 선박신호로 항복의사를 밝혔다.<sup>22)</sup> 위치는 독도 남남서

20) Там же.

21) 『해전사』, p.245.

22) 『해전사』, p.245.

약 18km 거리에서였다.

5월 28일 오후 2시경 북으로 도주 중인 러시아 어뢰정 2척, 즉 그로즈니(Грозный)함과 베도비(Бедовый)함은 울릉도 남서쪽 70km 지점에서 항복하였다. 일본 함대가 달아나는 잔여 함대를 울릉도 해상에서 포위하여 항복을 받아낸 것이다. 베도비함에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이 누워 있었다.

모두가 항복했으나 이즈무르트(Изумруд)함은 항복기를 내리고 빠져나와(함장 페르젠(В. Н. Ферзен)) 3시간 동안 24노트 전속력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일본 함대가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입항을 방해할 것을 염려해 북쪽 캄차트카 방면으로 달아나 버렸다. 반면에 알마즈(Алмаз)함과 브라비(Бравый)함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의 일본 함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15-16노트 속도로 일본 해안가 방향으로 가다가 북쪽을 돌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입항하였다. 다음 달 16일의 일이다. 이 세 척의 배가 동해해전의 불길을 뚫고 생존한 배였다. 비록 그 숫자는 적지만 최후까지 항전하며 생존했다는 사실이 종전협상을 유리하게 이끈 계기가 되었다.

전투는 동해의 서쪽에서도 벌어졌다. 5월 28일 오전 7시경 일본 군함 오토와(音羽)함과 니이다카(新高)함은 울릉도 남쪽 약 50km 해상에 도달했을 때, 러시아 군함 스베틀라나함과 브이스트리 구축함을 발견하였다. 스베틀라나함은 전날의 교전 중 함수를 크게 상하여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추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함장은 육지 쪽으로 변침하였다. 그러나 9시 25분경 약 9km 거리까지 따라잡히자 이후 1시간 동안 교전하다 격침되었다. 스베틀라나함이 최후를 마친 주 전장은 한반도 동해안의 죽변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sup>23)</sup>

스베틀라나함이 격침되자 뒤따르던 구축함은 이 곳 죽변만에서

23) 『해전사』, p.241, 254~255.

전속력으로 북쪽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5km 정도 이동한 곳에서 일본 군함 니이다카함에 따라 잡혔고 그 곳에서 합세한 무라쿠모(叢雲)함의 공격까지 당하여 더 이상 건디지 못하고 좌초되었다.<sup>24)</sup>

한편 러시아군함 블라지미르 모노마흐함은 28일 오전 항복하려 하였으나 자국 구축함이 다가서자 생각을 바꿔 재차 도주하였다. 아침 8시 35분 경 일본 시라누이(不知火)함은 블라지미르 모노마흐함에 합류한 러시아 구축함을 추격해 공격하였다. 블라지미르 모노마흐함보다 전투력이 더 강할뿐더러, 먼저 선수를 쳐야 더 큰 블라지미르 모노마흐함을 공격하기 수월했기 때문이었다. 오전 11시 20분경 울산 앞바다에 도달한 양측은 접전을 벌여 오후 12시 4분경 러시아 구축함이 무력화되었다. 이 러시아 구축함은 결국 울산항 북동쪽 약 15km 지점에서 침몰하였다.<sup>25)</sup>

그 외 대부분의 전투는 동해 중부지역에 위치한 울릉도, 독도 주변 해상에서 전개되었다. 베도비함은 28일 오후 4시경 울릉도 방면으로 이동 중 일본 군함 사자나미(漣)함과 가계로오(限炎)함의 공격을 받아 항복하였다. 4시 45분경 일본 측 군함의 포격이 개시되자 러시아 측도 즉시 응전하였으나 곧 전투는 끝나고 말았다. 이 군함에는 중상을 당한 로제스트벤스키 사령관이 타고 있었다. 러시아 측 군의관이 중상자를 옮기지 말라고 요청하여 베도비함의 대포 및 어뢰를 제거하고 조타상 필요한 부분만 남긴 채 병력을 그대로 접수하였다.<sup>26)</sup>

아마도 제3단계 전투 중 가장 큰 전투는 드미트리 돈스코이함이 벌인 전투로 볼 수 있다. 28일 울릉도 서쪽을 경유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려던 드미트리 돈스코이함은 5시 50분경 일본 군함의 수색에 걸렸다. 7시경 일본 군함 오토와함과 니이다카함이 울릉도

24) 『해전사』, p.241, 256.

25) 『해전사』, pp.257~258.

26) 『해전사』, pp.261~262.

남동쪽 약 30km 거리에서 합류하여 동서로 공격하였고 뒤따라온 후부키(吹雪)함이 교대로 습격하였다.<sup>27)</sup>

드미트리 돈스코이함은 5월 27일 전날 밤의 격전에도 불구하고 갑판 위의 일부 구조물만 손상입는 정도로 멀쩡했다. 처음에는 올레그함이나 아브로라함과 같이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어둠에 길을 잃었으나 다시 방향을 잡아 북동쪽으로 향진하였다. 그 다음날 새벽에 이르러 부상당한 사령관이 타고 있던 어뢰정 부이니함을 만났으나 사령관을 베도비함으로 옮기고 함정은 드미트리 돈스코이함과 함께 이동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이니함이 손상을 심하게 당하여 더 이상 향진할 수 없게 되자 드미트리 돈스코이함은 장병들을 옮겨 태우고 어뢰를 쏘아 부이니함을 침몰시켰다. 울릉도 남쪽 해역 약 70km 지점이었다.



△ 울릉도 인근에서 최후까지 전투한 러시아 반장갑 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함

27) 『해전사』, p.242, 266~269.

드미트리 돈스코이함은 28일 항진을 계속하던 중 16시경 수평선 너머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는 적함이라 여겨 북서 방향으로 틀어 울릉도 서편을 지나려 하였다. 그런데 울릉도 서편 46km 지점에서 일본 순양함의 추격을 허용해 교전에 들어갔다. 드미트리 돈스코이함은 무장을 해제하려 달려드는 4척의 일본 함대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화포를 열며 맞서 최후의 분전을 감행하였다. 일본 측과의 교전은 밤 10시가 되도록 계속 되었다. 접전이 계속될수록 양측 피해가 커져갈 즈음 드미트리 돈스코이함의 연통과 조타기가 파괴되자 연속으로 기관의 압력이 낮아지고 속력을 5노트 이상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드미트리 돈스코이함은 어둠을 뚫고 울릉도(Дажелет)로 피신하였다.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드미트리 돈스코이함은 오후 5시경 일본 군함을 보고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연안에 좌초시키려고 울릉도 방면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7시경 일본 측으로부터 포격을 받아 응전하였다. 일본 측은 드미트리 돈스코이함이 그래도 잘 분투하였으나 곧 곤경에 빠져 사상자가 속출하였으며 일몰이 되어 겨우 격침을 면했다고 적었다.<sup>28)</sup> 드미트리 돈스코이함은 울릉도 저동 앞 약 740m 해상에서 머물다 370m 거리로 다가와 닻을 내리고 단정을 내려 병력을 해안으로 하선시켰다. 병력을 거의 하산시켰을 때 치명상을 입은 함장 대신 선임장교 블로힌(Блохин) 중령의 지휘 하에 닻을 수심 45사젠(약 100m) 위치로 내리고 배수판(킹스톤)을 열어 서서히 침몰해 들어갔다. 배에 남아 있던 함장 일행은 갑판이 없는 짐배를 타고 해안으로 되돌아옴으로써 포로로 잡히지 않고 명예를 지켰다.<sup>29)</sup>

28) 『해전사』, p.269.

29) 『러일전쟁사』, p.446.

### 3. 나오는 말

막강한 러시아 함대 38척 중 대부분의 군함이 일본이 쳐 놓은 포위망에 걸려 침몰하거나 포획당하였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포로로 잡힘으로써 비참한 패배를 당하였다. 동해해전은 러시아 함대 300년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18척의 전함이 파괴되었으며 5척의 전함이 항복하여 일본 함대에 편입되었다. 순양함 3척은 마닐라에, 어뢰정 1척은 상하이에 억류되었고, 겨우 2급 순양함 알마즈(Алмаз)함과 어뢰정 두 척(브라비함과 이즈무르트함)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빠져나왔다.<sup>30)</sup> 12척의 주력함을 포함한 96척의 일본 함대는 3척의 어뢰정을 잃었을 뿐이었다. 이 가운데 드미트리 돈스코이함은 로제스트벤스키 사령관이나 네보가토프 사령관이 부상당하거나 항복하여 목숨을 유지한 가운데 함장 및 장교들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이들은 죽음으로써 조국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키고 종전협상의 불패전 논리를 설파하는 협상 근거로 인용되면서 러시아 측의 강화협상시 유리하게 이끌 수단이 되었다.

동해해전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한반도 서해에서 남동해까지 해상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해상에서의 승전은 만주 육상에서 교착상태에 있던 정세를 일본에게 유리하게 기울도록 하였다. 전쟁 발발 1주년 즈음 제기되었던 강화 논의는 봉천에서의 결전 이후 전개된 동해해전의 승패에 따라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당연히 일본 측에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되었다.

동해해전에서 러시아 측은 러시아 해군력이 괴멸당하는 패배를 당했다. 러시아함대는 겨우 3척의 함선이 전장을 벗어나 블라디보스토크로 입항함으로써 전패를 면했다. 이는 러시아가 강화협정을

30) А. Б. Широкоград, там же, с. 355~356.

맺는 과정에서 패전하지 않았음을 항변할 근거가 되었다. 게다가 협상이 진행 중에, 여전히 한반도 북부 회령-웅기선에서는 러·일 간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쓰시마 해전을 동해해전으로 바꿔 쓰자고 제안하였다. 전투가 벌어진 시공간적 의미가 결코 쓰시마해역의 27일 전투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해전은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동해 남부에서 시작해 중서부를 거쳐 북부로 이어져, 동해 전역을 전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학계에서는 쓰시마해전을 일본해해전이라 부르고 있듯이, 동해해전이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동해와 독도·울릉도 지역에 대한 군사지리학적 의미를 적극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고투고일: 2015.10.7, 심사수정일: 2015.11.19, 게재확정일: 2015.11.20.]

주제어 : 러일전쟁, 쓰시마전투, 동해해전, 러시아 제2태평양함대, 일본 연합함대, 해상주도권, 독도

<ABSTRACT>

## The Reorganization of 'East Sea Battle', last naval battle of the Russo-Japanese War

Sim Heon-yong

This paper is to aim reconfigure the naval combat known as the Battle of Tsushima, having considered as a turning point of the Russo-Japanese War by time and space and is to suggest in order to use the term 'East Sea Battle' to reflect more comprehensively the nature of the battle.

From 27th to 28th May 1905, The Russian and the Japanese fleet collided into each other on near sea area of Tsushima in Korea Strait and located between Ulleung-do and Dok-do in the East Sea.

As a result of this battle, Japan could fully seize the initiatives of the war. Japanese combined fleet annihilated the second Pacific Fleet of Russia that has scrambled from Baltic Sea and the Russian Navy was severely damaged so that it cannot be recovered in the short term. So the Japan not only seized the initiative of war but also occupied the East Sea as its inland sea resulting in gaining the initiative in Northeast Asia maritime.

So far, in the domestic academic community, it did not use the name of East Sea Battle. There are some cases of use the term 'East Sea Battle' to describe a series of battles that have been developed in the East Sea during Russo-Japanese War 1904-1905. But, there were no cases named as the "East Sea Battle" on the series of battle deployed May 27th to 28th in 1905. Also foreign academic circles, including Russia, were named the battle taken

place on May 27th in Tsushima offshore as the “Tsushima Sea Battle” (對馬島戰鬪, The Battle of Tsushima, Цусимское сражение) not as the “East Sea Battle”. It means it does not give significant meaning for the battle developed in the Midwest of East Sea(Ulleung-do, Dok-do, Ul-san gulf and Juk-byeon gulf) while the Russian warship has fled to the north on next day, May 28th.

However, Battle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pursuit and mopping up the remnants of Russian warships that escaping up to north Eastern Sea and Vladivostok as a result of Tsushima Battle. In this paper, the three stages of the battle were splitted into three stages by time zone and examined that each stage has been developed in different areas. To generically name the entire battles, it seems more appropriate to call “East Sea Battle” than “Tsushima battle”. The battle is not limited to Tsushima sea area spatially and looking through a battle step by step, it was found that using term “East Sea Battle” has an advantage of analyze an aspect of battle in detail.

Key Words : Russo-Japanese War, Battle of Tsushima, East Sea Battle, The second Pacific Fleet of Russia, The Combined Fleet of Japan, The maritime initiative, Dok-do